[뉴스제휴평가위원회 보도자료]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발표

2021-02-24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 일과 23 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 평가 TF 등 규정 개정 결정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0 년 7 월부터 총 5 개의 TF 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7 개월 간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 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 월 1 일을 기준으로 과거 2 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 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 1 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를 일부 변경하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출 중단 등 제재 처분 검토 TF 는 제휴매체의 재평가(제휴매체와의 계약 유지의 적절성 등에 관한 '뉴스제휴평가위'의 평가) 주기를 기존 6 개월에서 3 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재평가 대상 매체의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 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시까지 노출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 삭제 등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TF 는 평가를 진행하는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 입점 평가 지원시 매체들의 편의를 위해 매체 소개서 양식을 마련해 지원 매체들이 더욱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자동생성기사 TF 는 자동생성기사의 폐해를 막고, AI 저널리즘의 실험을 막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의 경우 하루에 10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 는 지역 매체 입점에 관해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제안해 주기를 원하는 포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재논의하는 TF 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3 월 1 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양사 뉴스제휴평가원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5 년간의 공과(功過)' 세미나 개최

운영위원회는 오는 26 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 년간의 공과(功過)'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 년간의 제평위 활동을 평가하고 존립 이유 및 목표, 역할,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는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가, 발제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는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 이희정 前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 실장, 임장원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국장,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 박사로 모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 TV(https://tv.naver.com/mpec)와 카카오 TV(https://tv.kakao.com/channel/3224313/)를 활용한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픈 채팅을 통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끝]